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1. 8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미 하원의원 수입물 감시 프로그램 강화 법안 제안

2. FIP 사업 보고 절차 개선을 위해 평가 시스템 갱신 진행

3. 미 해군, 중서부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WCPFC와 협력

4. 다수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 MSC 인증 잠정적 정지 위기

5. 일본 수산청, 태평양 참다랑어 유어 채포 금지

6. 미국 NOAA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7. 프랑스 선박, 영국 해역에서 IUU 활동으로 의심

8. 노르웨이, 세계 최대 양식 전시회 개최

9. 슬로베니아는 왜 자국 EEZ에서 참치를 잡을 수 없는가?

1 미 하원의원 수입물 감시 프로그램 강화 법안 제안

□ 수입 수산물에 대한 추가 정보 요구사항과 인권 문제도 IUU 정의에 포함 제안

○ 미 하원의원 Jared Huffman이 미국 수산물 공급사슬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노예 노동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함

○ 본 법안(H.R.3075)은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SIMP)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랑어, 킹크랩, 대구 등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을 포함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어 천연자원하원위원회(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에서 논의됨

○ "불법 조업 및 강제 노동 예방법(Illegal Fishing and Force Labor Prevention Act"라는 제목을 가진 본 법안은 SIMP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산물 수입업자에게 추가 데이터 보고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추가되는 데이터에는 수입물의 어획 장소와 전자 기록을 포함하며, 공급 사실의 모든 주요 지점에서 관할당국에게 제출되어 확인을 받아야 함

○ Huffman 하원의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며 2019년 기준 대미 수산물 수입품의 11%가 IUU 어업의 형태로 어획되었다고 설명

○ SIMP 확대와 더불어, 본 법안은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 과정에서의 라벨링 개선을 포함

* 라벨링은 다음 정보를 포함

- 수산물 어획/양식 위치
- 수산물의 시장에서 불리는 이름, 학명, 양식 및 수산 정보 시스템 번호
- 자연 포획/양식 여부
- 어획 시 이용된 어구
- 어획/양식 일자 및 개별 수산물의 무게 및 수
- 수산물 양륙 일자 및 양륙 주체의 이름
- 어선 기국, 허가 증서, 고유선박번호(해당 시)

– 수입업자에게 발행된 NOAA 국제수산무역허가번호

○ 법안에는 IUU 정의 업데이트도 포함하고 있으며, 천연자원하원위원회에서 Huffman 하원의원은 미 수산청장 Janet Coit에게 IUU 정의에 강제노동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며 압박함

○ Coit 수산청장은 IUU 정의 변경은 "NOAA 홀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며, 여러 행정부처들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고 설명함

○ Huffman 의원의 법안은 5월에 발의되었으며, 미 수산물 공급사슬에서 강제노동을 단속하기 위한 미 연방정부 노력의 일환임

○ 2020년 미 연방정부는 15개의 인도보류명령(withhold-release order, WRO)을 내렸으며, 일부 외국 선박과 수산물 회사도 포함됨

○ 한편, 미 수산물 업계는 SIMP가 아직 IUU 어업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SIMP 확대는 시기상조라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기사 출처: Seafoodsource[1)]

1)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ommittee-discusses-anti-iuu-bill-that-would-expand-simp-to-all-seafood ('21년 8월 24일 검색)

2 FIP 사업 보고 절차 개선을 위해 평가 시스템 갱신 진행

□ **지속가능한 어업 파트너쉽(Sustainable Fisheries Partnership)은 어업개선사업(FIP)의 보고 절차의 책임(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증대시키기 위해 FIP 평가 장치에 업데이트 사항을 발표하였음**

○ FIP 활동과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분명하게 하고 개선 모습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 업데이트를 진행함

○ FIP 평가 장치는 해당 어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어업 개선 등급을 소비자, NGO, 정부 기관, 교육 기관 등에게 제공함

- 본 장치는 계량(metric) 방식으로 평가의 기준(standard)이 아니며 어업의 개선 상태를 시간 단위로 제공함

○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업데이트는 FIP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 또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필수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

○ 평가 절차(evaluation process) 및 시간 기준(time benchmarks) 또한 도입되어 FIP 활동을 더욱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됨

○ 장치는 지속적으로 "A"에서 "E"까지 알파벳 등급을 사용하여 개선 사항을 추적함

○ 새로운 FIP 평가 장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FisheryProgress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정의에 따라 일관되게 맞추기 위해 개선하였음

※ 출처: SeafoodSource[2)]

2)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updated-sustainable-fisheries-partnership-tool-will-improve-tracking-of-fishery-improvement-efforts (‘21년 8월 25일 검색)

3 미 해군, 중서부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WCPFC와 협력

□ 중서부태평양 IUU 어업과 범죄 활동 예방을 위한 작전 수행

○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중서부태평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국제 범죄를 근절하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 작전(Oceania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OMSI)을 시작함

○ 연안 전투함 USS Jackson호(LCS 6)와 해안경비대 태평양 전략법률집행팀은 미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자원 안보 및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양 작전을 실행하고 있음

○ 본 작전은 국제법과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의 협력 하에 진행됨

○ OMSI는 미 국방부의 자산을 이용하여 해양 안보와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으로, 종국적으로 오세아니아의 지역 안보와 파트너십 지원을 목적으로 함

○ Stacy Wuthier, USS Jackson호 함장은 "USS Jackson호는 OMSI 미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지역 안보를 지키고 서태평양의 불법 활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함

○ 미 해군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의 협력을 통해 미 해안경비대의 해양법 집행 수행을 도와 해양영역인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임

○ 미 태평양 함대 소속인 미 제3함대는 인도 태평양에 주둔하며 모든 미 군사 활동에 필요한 해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 활동을 제공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필요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 중임

출처: Commander, U.S. Pacific Fleet [3)]

---

https://www.cpf.navy.mil/news.aspx/130898 ('21년8월24일 검색)

4 다수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 MSC 인증 잠정적 정지 위기

□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 관리 협의회)는 중서부 태평양 수역에서 활동하는 22개의 참치 어업이 MSC인증 자격을 잠정적으로 정지(suspend) 당할 위기에 있음에 우려를 표명함**

○ 22개의 참치 어업이 취득한 MSC인증의 경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26개 회원국이 공유하는 참치 자원량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어획 전략(harvest strategy) 및 규제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합의한다는 조건하에 승인을 받은 것임

- WCPFC는 중서부태평양(WCPO)수역의 가다랑어,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자원량을 관리하고 있음

- 어획 전략 및 강력한 어획 관리 규제는 목표 어획 수준을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효력이 있는 WCPFC 조치들 가운데 MSC 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

- 가다랑어 및 날개다랑어에 대한 개선사항은 2022년 12월까지 개정해야 하며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경우 2023년까지 개선사항을 수립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보존조치의 개선사항들의 경우 2021년 12월 연례회의, 과학위 및 이행위원회에서 회기간 합의를 얻어 2022년까지 협상을 타결시켜야 함

- WCPFC가 어업 통제 규칙(harvest control rules)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협약 수역의 인증된 22개의 참치 어업 및 현재 인증을 얻으려는 5개의 업계도 2023년까지 인증을 잠정적으로 정지당할 것으로 보임

-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WCPFC의 작업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며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조치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함

※ 출처: MSC[4)]

4)https://www.msc.org/media-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msc-certified-western-central-pacific-tuna-at-risk-of-suspension (‘21년 8월 5일 검색)

5 일본 수산청, 태평양 참다랑어 유어 채포 금지

□ 일본 수산청, 태평양 참다랑어 유어 채포 금지 발표

○ 일본 수산청은 20일 광역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를 바탕으로 태평양 참다랑어 대형어 (30kg이상)에 대해 유어 채포 금지 상한인 20톤에 가까워져, 채포 금지를 발표

- 채포 금지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 참다랑어 유어는 6월1일부터 30kg미만의 소형어는 채포 금지로하고 대형어는 어획량 보고 의무가 부과됨

○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대형어의 보고 수량은 올해 19일 현재 19.5톤에 달함

○ 대형어는 보고의무를 부과한 이후, 어획이 누적되어 6월 16일 기준 10.8톤

○ 수산청은 당초의 예상을 웃도는 속도로 어획이 되고 있어, 어획 자제를 요청

6 미국 NOAA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IUU 어업활동에 관여한 7개 국가들과 부수어획을 저감하기 위한 규제 프로그램이 불충분한 29개 국가들을 지정하였음. 이것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국제어업관리개선('21년 8월)"에 담겨 있음.

○ 보고서는 중국,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멕시코, 러시아, 세네갈, 대만의 선박들이 '18-'20년 기간 중 IUU어업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 선단들은 ICCAT, IATTC, WCPFC 협약수역 내에서 운항하고 있음. 보고서는 또한 부수어획, 쿼터 위반, 새치류 초과어획, 금지어구 사용에 대해서도 요약하고 있음.

○ 참치 관련 사안들 중에는 가이아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이아나는 자국의 어획 355톤을 보고하지 않아 명단에 오르게 되었음. 세네갈은 아프리카 항구에서 하역하려고 한 자국의 참치 연승선이 유효한 허가를 갖고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ICCAT 규칙의 불이행임.

○ NOAA의 이번 지정은 2023년에 재검토되는데, NOAA는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된 7개 국가들의 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멕시코의 경우, NOAA의 국립해양어업원(NMFS)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멕시코만의 미국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선박들 때문임. 이 선박들은 거북, 붉은 도미 등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보호종들을 어획하였음. 멕시코는 이 불법어업 활동에 관여하는 소형 선박들에 대한 통제에 실패하여 미국으로부터 두 번 연속으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임.

○ 멕시코의 참치 어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자국 항구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도 있고, 나아가 통조림 참치를 포함한 멕시코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멕시코 참치 업계에 대한 영향도 심각

할 수 있음. NOAA에 따르면, 수입 규제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하고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는 없다고 함.

ㅇ 에콰도르는 NMFS와 2년간의 협의를 통해 부정적 평가 결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음. 에콰도르는 IUU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하였음. 에콰도르는 그러나 IUU어업 대응 노력이 불충분함을 이유로 EU로부터 여전히 옐로우 카드를 받고 있는 상태임.

ㅇ 한국도 IUU 및 부수어획 위반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증명함으로써 NOAA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

ㅇ 보고서와 함께 NOAA는 IUU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의 미국 내 반입 금지를 위한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을 활용해 오고 있음. NOAA는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ㅇ NOAA는 또한 보호되고 있는 해양생물의 혼획 및 상어 보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보고서는 부적합한 혼획 규정을 갖고 있는 29개 국가 및 실체들을 열거하였음. 미국은 자국의 혼획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가진 국가를 보고서에 등재하고 있음.

ㅇ 등재 사유는 ICCAT, IATTC, 및 WCPFC에서 운항하고 있는 참치 연승선단에 의한 바다거북의 혼획과 관련된 것임. 등재된 국가 및 실체는 알제리, 바베이도스, 중국,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이집트, 유럽연합, 프랑스, 그리스, 그레나다, 가이아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몰타, 모리타니아, 멕시코, 모로코, 나미비아, 포르투갈, 세인트빈센트앤그레나딘, 세네갈, 남아공, 스페인, 대만,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임.

※ 출처: atuna.com [5)]

5) https://atuna.com/news/mexico-in-noaa-s-list-of-iuu-fishing-countries?highlight=WyJub2Fhliwibm9hYSdzIl0= (2021년 8월 13일 기사)

7 프랑스 선박, 영국 해역에서 IUU 활동으로 의심

ㅇ 영국 어민들과 프랑스 어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음. 영국 어민들은 프랑스 상업 어선이 Jersey 섬 주변에서 참다랑어 1톤을 불법 어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채널 제도(Channel Islands)의 Jersey 정부는 불법어업 의심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Jersey Evening Post지에 따르면, 이 불법 어획물이 경매에서 10,000 파운드(약 13,707 달러)에 판매되었다고 함.

ㅇ 참다랑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Jersey의 야생동물법에 의해 보호되는 종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어획이 금지되고 있지 않음. Jersey 어민연합회 회장 Don Thompson은 프랑스 선박들이 섬 주변에서 금지되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언급하였음.

※ 출처: atuna.com [6)]

6) https://atuna.com/pages/french-vessel-accused-of-iuu-tuna-fishing-in-channel-islands?highlight=WyJmcmFuY2UiLCJmcmFuY2UncyJd (2021년 8월 23일 기사)

8 노르웨이, 세계 최대 양식 전시회 개최

□ **노르웨이, 세계 최대의 양식, 수산기술 전시회 "Aqua Nor" 24일 개최**

○ 4일간 개최되는 전시회는 코로나19 대책을 세운 뒤, 실제 회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되었음

○ 최신 양식 관련 기기, 시스템, 수산 가공 기계 등의 부스가 설치되어 노르웨이,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한국 등에서 약 603개의 부스 출전

○ 근년의 관람객 수는 약 80개국과 지역에서 2만 5000명이 방문

○ 개회식에서 트론하임시 시장은 "아쿠아놀은 수산양식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행사로 UN의 지속가능한 목표(SDGs) 달성을 위해 강력한 양식산업 구축이 중요, 아쿠아놀은 중요한 거점이 되어줄 수 있다"고 강조

○ 개회식에는 노르웨이 수산부 장관, 영국 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

○ 전시회 홈페이지 : https://aquanor.no/en/

※ 출처: 미나토 신문[7)]

7)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5398 ('21년 8월 26일 검색)

9 슬로베니아는 왜 자국 EEZ에서 참치를 잡을 수 없는가?

ㅇ 슬로베니아 어민들은 자국 해역에서 참다랑어를 잡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EU 회원국인 슬로베니아는 EU ICCAT 참다랑어 쿼터를 배분받고 있지 않음. 슬로베니아 어업정책 결정자들은 EU 가입 당시 참다랑어 쿼터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지중해에 참다랑어가 희소했음. 하지만 지금은 지중해에 참다랑어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으나, 지역 어민들이 참다랑어를 잡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됨. (Primorkse Novice 보도 내용)

ㅇ 슬로베니아 지역 어시장에서, 이탈리아에서 오거나, 크로아티아 선박에 승선한 슬로베니아 어민에 의해 어획된 참다랑어 1kg는 약 28유로에 판매되고 있음. 슬로베니아가 만약 수십년 전에 이루어진 결정을 뒤집을 수만 있다면, 국가의 참치 어업 전통을 재생시킬 수 있을 것임.

※ 출처: atuna.com [8)]

8) https://atuna.com/pages/why-can-slovenians-not-fish-any-tuna-in-their-eez?highlight=WyJzbG92ZW5pYSIsInNsb3ZlbmlhJ3MiXQ== (2021년 8월 3일 기사)